

“개고기 보도 문제 확산 한인사회에 더 큰 피해”

뉴욕지역 9개 단체장들 논의 ... 뉴욕한인회와도 '자숙' 입장정리

3일 각계·일반인 참석 공청회 개최

뉴욕 지역 한인회 대표들은 29일 저녁 플러싱 영빈관에서 WPIX(채널 11)의 '시럽이 개를 본다?' 보도와 관련한 모임을 갖고 '보신탄'은 한국 고유의 식문화지만 이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오히려 한인사회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뉴욕지역 단체협의회(회장 문일한) 월례회의에 참석한 9명의 지역 한인회 대표들은 각자 '개고기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11개 지역 한인회 대표 가운데 2명만 빠져 경소에 비해 참석률이 높았다.

문일한(맨하탄 한인회) 단체

협의회 의장은 "이번 문제와 관련, 한인권익신장위원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이 뉴욕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뉴욕 한인회와 논의도 하지 않고 채널 11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한 것은 상급했다"며 "이 문제는 한인사회 전체의 의견을 확실하게 수렴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러싱 한인회 이춘형 회장은 "간약 데모 등을 통해 개고기 문제를 확산시키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우리 자녀들이 미 주류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바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계 인사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예 계속>

(신용일·정지영 기자)



김석주 뉴욕한인회장(가운데)이 29일 뉴욕한인회관에서 문일한 뉴욕지역단체협의회 의장(왼쪽), 손오송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의장과 채널11 개고기보도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권익신장위등 일부단체 채널11에 항의서한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은용 회장과 뉴욕한인노인상담소 김기호 소장은 29일 오후 4시45분 맨하탄 42가 소재 WPIX(채널 11)를 방문. 지난 19, 20일 저녁 보도한 '시럽이 개를 본다?' 뉴스프로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박 회장과 김 소장이 배티 엘렌 빌라미노 부사장 앞으로 작성, 알렉스 앤 비서관에게 전달한 항의서한은 플리 크라이즈맨

의 "뉴스 보도가 사실을 왜곡해 전체 한인사회를 왜곡시켰다"며 크라이즈맨 기자와 프로듀서에게 적절한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회장은 "물론 한인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일단 이번 보도가 한인 커뮤니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방송국 앞에서 시위를 하고 떠돌고 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러한 방송이 나가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자는 뜻에서 서한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북가주 첫 한인시장 탄생 양진석씨, 코테 마데라시 시장에

백인이 전체 주민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 코테 마데라시 시장에 한인 양진석(60)씨가 선출됐다. 북가주 지역에서 한인 시장이 탄생하기는 양씨가 처음이다.

지난 99년 11월 임기 4년의 시의원에 당선된 후 이듬해 11월 부시장에 선출된 양씨는 28일 자신을 포함한 5명의 시의원 구두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시장에 뽑혀 향후 1년간 시장을 이끌게 됐다. 시의원들은 매년 임

기 1년의 시장을 호선한다. 양씨는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며 "오늘의 필요로움을 누리도록 수고한 노인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우선 내년 5월께 경로 의 날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 87년부터 인구 1만명의 전원도시인 코테 마데라에서 생선요리 전문 레스토랑을 경영하면서 노인들의 모임을 지원하고 태권도 공인 7단으로서



주민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 앞장서왔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인근의 코테 마데라는 가구당 소득이 연간 6만 달러로 미국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필름 필름

◎ ...아프간 전쟁 발발직후 CNN 회장, '균형보도' 명령. 우리 동네 '개고기 전쟁'도 해당.

한인사회 '보신탄' 논의 지상중계 <4.5면>